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9. 30.(목) 총 16매(본문 8, 붙임 8)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수산물)	담당자	• 과장 임태훈, 사무관 김지현, 주무관 윤성하, 주무관 허태수 • ☎ 044)200-5440, 5447, 5448		
	해양생태과 (해양생물)	담당자	• 과장 이재영, 사무관 장유경, 주무관 황유영 • ☎ (044)200-5310, 5315, 5317		
	항로표지과 (등대)	담당자	• 과장 정준호, 사무관 김정식, 주무관 배용찬 • ☎ (044)200-5870, 5878, 5881		
	해양영토과 (무인도서)	담당자	• 과장 김완수, 사무관 박희윤 • ☎ (044)200-5350, 5355		
	해양정책과 (해양유물)	담당자	• 과장 김용태, 사무관 우민아, 주무관 윤기범 • ☎ (044)200-5232, 5236		
보도일시		2021년 10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3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10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해수부, 10월 이달의 수산물·해양생물·등대·무인도서·해양유물 선정 -

### ① 이달의 수산물 - 고등어, 새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고등어와 새우를 선정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생선인 고등어는 부엌에서 쓰던 식칼과 닮아 ‘고도어’로 불리다가 ‘고등어’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등어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국내산 고등어의 경우 지방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제철로, 이 시기에는 맛이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고등어에는 소고기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단백질이 많고, 오메가-3 지방산(DHA, EPA)이 풍부해 아이들의 두뇌 발달, 노인들의 치매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

구이로 많이 먹는 고등어는 목은지와도 잘 어울린다. 고등어 목은지 찜은 김치 숙성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이 소화를 도와주고, 목은지의 시큼한 맛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주어 더욱 궁합이 좋은 음식이다. 고등어 목은지 찜을 만들려면, 손질된 고등어와 목은지, 양파, 대파를 준비하고,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한입 크기로 자른 목은지를 깔고 고등어, 양념장, 양파 및 대파 순으로 올려준 다음,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비린내가 날아가도록 뚜껑을 비스듬히 덮은 뒤 폭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되며, 찹뜨물에 고등어를 미리 재워놓으면 비린내 제거효과가 더욱 좋다.

\* 국간장 1큰술, 다진마늘 1/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1큰술, 들기름 1큰술

새우는 한자로는 ‘하(蝦)’ 자를 사용하고, 일본어로는 ‘해로(海老)’라 하여 ‘바다의 노인’이라는 뜻을 지녔는데, 허리가 굽어진 새우가 마치 노인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별칭이다.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성분을 고루 갖추고 있는 새우는 특히 아르기닌 함유량이 높아 ‘바다의 자양강장제’로 불릴 만큼 스타미나 증진에 특효가 있으며, 타우린과 베타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새우는 아욱과 잘 어울리는데, 이는 아욱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새우가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욱국을 끓일 때 말린 새우나 새우가루를 넣으면 맛이 더욱 개운해지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고등어와 새우로 환절기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② 이달의 해양생물 -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출처: ㈜인더씨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검붉은색의 폴립이 마치 푸른 바닷속 꽃다발을 연상하게 하는 ‘검붉은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suensoni*)’를 선정하였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곤봉바다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바닷속 암반에 붙어있는 기둥 모양의 군체를 중심으로 가지가 갈라지고 잔가지 끝에는 검붉은색의 폴립\*\*이 줄지어 달려있어 화려한 꽃다발을 떠올리게 한다.

\* 독이 있는 자포(주머니)를 이용해 먹이와 포식자를 공격하는 동물

\*\* 산호의 최소단위 형태로 원통형 몸체에 위쪽 끝에 입이 있고 그 주변에 몇 개의 촉수가 있음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몸체를 수축·이완할 수 있는 연산호이다. 크기는 다양하나, 보통 몸체를 이완할 때 높이가 15cm, 폭이 8~10cm 정도 된다. 연안해역의 수심 15m 내외 암반에서 다른 연산호와 무리를 이룬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서식처는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자랑한다.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난류종으로, 서식범위를 통해 우리 바다의 수온변화를 연구할 수 있어 동물지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특히, 수지맨드라미류 중에서 분포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5년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에서 부산 남형제섬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동물의 지리적인 분포 또는 그 분포 특성을 탐구하는 분야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산란장이나 은신처 등을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 곳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해양오염과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검붉은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우리바다의 수온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이다.”라며, “아름다운 자태를 지녀 자칫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보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http://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이달의 등대 - 소리도등대



10월 이달의 등대로는 전남 여수시 남면에 위치한 높이 9.2m의 소리도 등대가 선정되었다.

1910년에 설치된 소리도 등대는 매일 밤 12초마다 한 번씩 약 48km 떨어진 바다까지 불빛을 비추며 남해에서 여수·광양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등대가 위치한 섬은 하늘에서 봤을 때 날개를 펼친 솔개와 닮았다고 하여 '솔개 연(鵞)' 자를 써서 '연도' 또는 '소리도'라고 불린다. 소리도는 안도, 금오도, 대부도, 소부도 등과 함께 금오열도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의 경관과 동백나무 등이 아름다워 1981년부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섬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상록수림이 빼곡하며, 높은 파도와 조류에 의한 침식으로 해안가에는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물개 바위, 코끼리 바위, 콧구멍 바위, 솔팽이 굴 등 자연이 연출한 해상조각들은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섬 주변에는 암석이 많아 감성돔이나 볼락 등이 잘 잡혀 여수권역 내에서 최고의 낚시터로도 알려져 있다.

소리도 등대 내부에는 1910년 건축된 최초의 등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성을 인정받아 2006년부터 등대문화유산 제22호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진행하는 '등대 스탬프 투어 시즌2'의 '역사가 있는 등대'에 포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건립한 지 100년이 넘는 등대 15곳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인 '등대 스탬프 투어 시즌2'를 시작했다. 등대 15곳을 모두 방문한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함께 한정판으로 제작한 등대모형 1천 개 세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소청도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 ④ 이달의 무인도서 - 세존도



10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세존도는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에 위치한 면적 33,000m<sup>2</sup>의 섬이다. 남해군의 남쪽 끝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육지에서는 직선거리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섬은 뾰족한 기암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해룡 두 마리가 몸을 비비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정교하게 쌓아 올린 성벽처럼 보이기도 한다. 섬의 한가운데에는 세존도의 가장 큰 특징인 남과 북을 관통하는 두 개의 바위 구멍이 있다. 이 바위 구멍은 '씨아치(sea arch)'라고 불리는데, 파도에 의해서 생긴 해식동굴이 더 침식되면서 아치 모양의 구멍이 된 것이다.

세존도는 불교와 인연이 깊은 섬이다. 옛날 세존(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이 남해 금산 상봉에서 득도를 한 후 돌로 배를 만들어 타고, 쌍홍문을 지나 세존도의 바위섬을 뚫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 때 돌배가 지나간 흔적이 바로 금산의 쌍홍문과 세존도에 있는 2개의 동굴

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세존도라는 섬 이름도 이 때 세존이 섬에 머무르다 갔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전해져 내려온다.

세존도는 기우제를 지내는 섬으로도 유명하다. 예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서면에 있는 망운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그 후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물을 준비해 세존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세존도에서 제를 올리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한다.

세존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 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유리부표



10월 이달의 해양유물로는 과거 실제 조업활동에서 사용되었던 ‘유리부표(浮標)’를 선정했다.

이 유리부표는 2010년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할 당시 기증된 해양유물이다. 기증자의 외조부가 1950년대 정치망(定置網) 어선으로 조업활동을 하며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유리부표 겉면의 끈은 원래 짚으로 꼰 새끼줄이었으나, 40년 전 내구성이 있는 현재의 노끈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부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구나 닳과 같은 물속에 있는 도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유리부표는 녹색의 둥근 유리를 고리 형태로 매듭진 그물 안에 넣어 손으로 들거나 도구를 걸 수 있게 제작되었다. 과거 자주 사용되었던 유리부표는 이후 스티로폼으로 대체되었다가, 최근에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부표로 바뀌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유리부표와 같은 우리 어민들의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사라져가는 다양한 해양 관련 유물을 수집하여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은 해양수산부가 소장한 유물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양자료도 포함된다. 대상 유물은 해양역사·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전적·미술품 및 각종 어업도구, 항해도구, 선박모형, 도서·사진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10월  
이달의 수산물

## 고등어

mackerel



출처 : 크리에이티브커먼즈

국내 수산물 소비량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국민 생선 고등어. 사실, 고등어는 노르웨이 수입량이 많아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국내산 고등어가 제철이므로 이때는 국내산 고등어 섭취를 추천한다. 고등어는 예부터 부엌에서 쓰던 식칼과 닮아 고도어로 불리다 고등어로 바뀌었다. 그리고, 고등어는 소고기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며, DHA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다. 또, DHA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하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246 kcal	62.1 g	17.8 g	18.7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4 g	26 mg	232 mg	1.6 mg

고도불포화지방산	EPA	니아신	DHA
(highly unsaturated fatty acid)	(EPA)	(niacin)	(DHA)
3,970 mg	1,070 mg	8.2 mg	1,490 mg

20210801

10월  
이달의 수산물

## 새우

Shrimp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새우는 한자로는 하(蝦)를 사용하며, 일본어로는 '해로(海老)'라 한다. '해로'는 바다의 노인이라는 뜻으로 허리가 굽어진 새우가 마치 노인과 닮아 붙여진 별칭이다. 새우의 종류를 살펴보면 참 다양한데, 그 중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새우는 대하, 보리새우, 꽃새우, 참새우 등이 있다. 그리고, 종종 크기가 큰 새우를 모두 대하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하는 새우의 종류 중 하나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수조 안을 헤엄치는 큰 새우는 사실 흰다리새우일 가능성이 크다. 새우는 자양강장제로 불릴 만큼 아미노산, 철분, 칼슘, 비타민B를 고루 갖추고 있다. 그 중, 아르기닌의 함유량이 높은 편인데 스태미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또, 새우는 타우린도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혈관 건강을 챙겨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성인병 예방을 돕는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100g 기준)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82 kcal	80.0 g	0.6 g	18.1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2 g	74 mg	210 mg	1.4 mg

라이신	류신	아르기닌	베타인류
(lysine)	(leucine)	(Arginine)	(Betaine)
1,455 mg	1,643 mg	2,897 mg	878 mg

20210801

## 참고 2 최근 5년간 고등어 및 새우 생산량 및 수출입량

### □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고등어	156,224	115,913	216,608	121,624	82,884
새우	31,297	29,163	34,163	33,188	39,802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 수출 · 수입량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고등어	수출	21,129,325	16,653,926	70,207,451	44,778,388	36,352,075
	수입	44,563,685	44,952,002	41,747,880	42,580,858	46,118,639
새우	수출	1,036,920	2,817,507	2,963,800	2,059,772	1,562,657
	수입	60,206,444	62,543,617	67,943,583	68,563,687	65,220,770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참고 3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 10월 이달의 수산물

가을 맞아 맛 오른  
국민 수산물!  
고등어, 새우  
더 알고싶어?



어식백세 블로그  
바로가기

### 고등어

보리처럼 영양 높고, 저염해  
바다의 보리가 별명인 고등어!  
구이, 튀김, 회, 조림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등푸른생선의 대표주자.

### 새우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은  
장수와 호사의 상징, 새우!  
넉넉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어느 요리와도 잘 어울려지는  
약방의 감초 같은 해산물



어식백세  
100세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해양수산부



2021. 10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 한국판뉴딜

**푸른바닷속 검붉은 꽃다발**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곤돌라맨드라미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바닷속 암반에 붙어있는 기둥 모양의 군체를 중심으로 가지가 갈라지고 잔가지 끝에는 검붉은색의 풀잎\*\*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화려한 꽃다발을 떠올리게 한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난류종으로 그 서식범위를 통해 우리바다의 수온변화를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 동물지리적 중요종이며,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산란장이나 은신처 등을 제공하여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 곳에 고착하여 서식하기 때문에 해양오염과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부터 검붉은수지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자포동물: 살아 있는 자포동물체를 이용하여 먹이와 포식자를 공격하는 동물  
\*\* 풀잎: 산호의 폴립단위에서 형성된 보호막을 통해 위쪽 끝에 남아 있고 그 주변에 몇 개의 촉수가 있음

**분포 및 생태적 특성**

검붉은수지맨드라미는 수지맨드라미류 중에서 분포범위가 가장 넓은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최근 5년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에서 부산 남해대성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형태를 수축·이완할 수 있는 연산호로 그 크기는 다양하나 몸체 이완 시 높이 15cm, 폭 8~10cm 정도이다. 연안해역의 수심 15m 내외 암반에서 다른 연산호와 무리를 이뤄 서식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제공한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검붉은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ulcata*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10월  
이달의 등대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 한국판뉴딜

111년간 빛을 밝혀온 아름다운 등대  
**소리도등대**  
연도등대

**소리도등대**

여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연도(連島)는 금오도, 안도, 대부도, 소부도, 삼도 등과 함께 함께 금오영도를 이루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중 하나이다. 섬 모양이 송곳 같이 생겼기 때문에 '소리도'로 불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송계 연(鰐)을 써서 연도로 명명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소리도'라고도 부른다.

1904년 첫 청도를 한 소리도등대는 연도 동쪽 끝에 위치한다. 육지형 등대와 한층 위대가 구조인 등대는 단조롭다 한 번의 흰색 불빛을 반짝이며, 40m 떨어진 바다까지 비추어 매우, 끝맛, 부산 등을 오기는 선박들에게 든든한 빛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에 모두 할수함에 따라 등대로 운송되고 있으며, 기존의 직원 숙소나 사무실 등 유숙 공간은 지면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해양문화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특히 등대 전도탑에 있는 연도의 조각상에서 보이는 바다 경관은 아주 인상적이며 아름답다. 이 지역은 따뜻한 해양성기후로 삼국수림이 빼어나며, 높은 적도, 조수, 해류 등에 의한 참치로 기암괴석이 밀집을 이루어 해양 생태계의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섬 전체가 갯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전복, 해삼, 소라, 성게 등 해산물 비롯해 각종 채소류가 풍부하고 감성돔이나 돌돔 등이 잡혀 어수근 내 최고의 낚시터로 알려져 있다.

**주변 관광지**

- 조카리매위
- 물개마위
- 못구렁마위
- 송평리교, 향굴
- 대룡단, 소룡단

**주변먹거리**

갯마을, 여수 여행자들이 꼽은 여수 10대맛집 중 갯마을은 남해안 청정 해역에서 4~10월 하순까지 명품문화를 충분히 속삭여 가장 맛이 좋다. '갯마을' 불리는 여수 갯마을은 청정이다. 기름기가 적고 보양감이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색이 없으며, 속살이 부드러운 갯마을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건강식으로도 꼽힌다. 갯마을의 단백질, 성분이 풍부해 독특한 향이 나고 기미, 화해과 같은 예방에도 좋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1. 1. 1. - 12. 31

1. 불로초 포스팅 이벤트  
남한여객선 등대에서의 화물탑  
→ 화물탑의 불로초를 찍어 포스팅 후, 우수 포스트를 선정하여 등대 체험 숙소 지원금 10만 원 지급

2. 모바일 등대투어 투어  
2021 시리즈 오존!  
소리도등대 2019~2021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바일투어!  
→ 소리도등대 2019~2021 시리즈  
투어 신청서 접수처에 등대 투어를 신청  
※ 2019~2021 시리즈 참여 가능

3. 등대 투어 및 사계절 등대 투어  
등대 투어를 신청하고 등대 투어를 신청  
→ 등대 투어를 신청하고 등대 투어를 신청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참고 6 이달의 무인도서 포스터



해양수산부 바다나온 해양수산부 한국판뉴딜 2021년 10월 이달의 무인도서

석가모니 다녀간 남해의 보물섬.

# 세종도

10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세종도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주면 상주리에 위치한 면적 33,000㎡의 섬이다. 세종도(世宗島)는 남해군의 화남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육지에서 직선거리로 25.68km 떨어져 있다.

섬은 독특한 기암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해를 두 마리가 몸을 바치는 것 같이 보인다고도 하며, 청교하게 쌓여 웅한 상백처럼 보이기도 한다. 섬의 정면 한가운데에는 세종도의 가장 큰 특징인 남과 북을 관통하는 바위 구멍이 있다.

세종도는 불교와 인연이 깊은 섬이다. 옛날 세종(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이 금산 상봉에서 득도를 한 후 돌로 배를 만들어 타고, 상봉문을 지나 세종도의 바위섬을 돌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돌배가 지나간 흔적이 바로 금산의 상봉문과 세종도역 2개의 동굴이라고 한다.

세종도라는 섬 이름도, 이때 세종이 섬에 머무르다 갔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전해온다. 그래서인지 섬의 정상부에는 스님 모양을 닮은 스님바위도 있고, 동굴 천장에는 미륵이라는 글씨도 있다고 한다. 세종도는 둘려 있는 두 개의 큰 바위 구멍 때문에인지 '문멍'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종도는 기후를 지나는 섬으로도 유명하다. 해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천산인 영문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그 후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물을 준비해 세종도에서 제사를 지낸다. 세종도에서 제를 올리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한다.


세종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 제공시스템(<http://u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f.go.kr> | <http://blog.naver.com/koreamof> | [www.facebook.com/pg/mofkor/photos](https://www.facebook.com/pg/mofkor/photos)

## 참고 7 이달의 해양유물 포스터

# 유리부표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10



현대 | 지름 41.2cm |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2010년 구대만 기증

이 유리부표(浮標)는 녹색의 둥근 유리를 고리 형태로 매듭진 그물 안에 넣어 손으로 들거나 도구를 걸 수 있게 만들어졌다. 부표는 부이(Buoy) 또는 부구(浮具)라고 한다. 부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구나 낚시 같은 물속에 있는 도구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유리부표는 스티로폼으로 대체되었다가 최근에는 친환경 부표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 유리부표는 2010년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기증운동을 펼칠 당시 기증된 자료이다. 기증자의 외조부가 1950년대 정치망(定置網) 어선으로 조업활동을 하며 사용하였던 것이다. 유리부표 겉면의 끈은 원래 짚으로 큰 새끼줄이었으나 40년 전 내구성이 있는 현재의 노끈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유리부표와 같은 우리 어민들의 어업도구, 선원들의 항해도구,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사라져 가는 다양한 해양 자료를 기증받는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배운-청년), 해양예능, 해양민속, 해양국악, 해양산업, 해양선박, 각종 어업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바다나온 해양수산부 한국판뉴딜

해양수산부